



개방화 시대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 종사자의 길

생명유지 위한 농업, 진정한 의미의 생명산업
자부심 · 책임감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 얻어야

■ 칙태동/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리 나라 국민의 불안감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론조사기관이 3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나라는 응답자의 60%가 10년 전에 비해 식품의 안전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함으로써 미국(26%), 영국(36%), 일본(3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국가로는 콜롬비아(82%), 멕시코(63%), 이태리(63%) 등 3개국뿐이었다고 한다.

한편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큰 편이어서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우리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4%로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41%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이는 미국내 여론조사결과 식품안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20%보다 대단히 높은 것과 매우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식품 공급자로서의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 종사자는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의 꾸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농산물 안전성 높고 소비자 신뢰 낮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숨일진대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근원이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농업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



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식품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의 조달에 책임을 다하는 기본자세가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생산성 향상의 그늘에는 갈수록 환경오염의 그림자가 넓고 짙게 깔려 우리 식품소비자들은 각자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갈수록 이전의 양적인 소비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호하는 질적인 소비 지향의 추세가 더욱 커가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산물에 대항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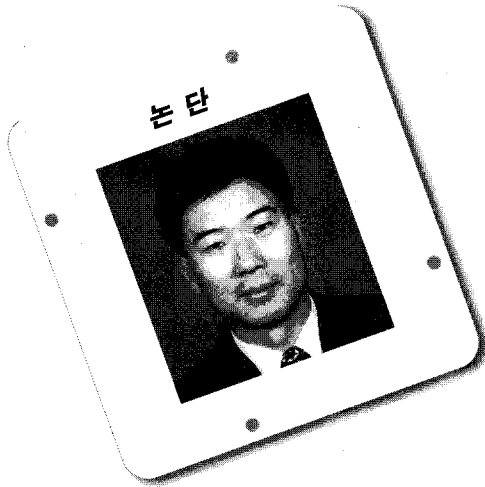
현재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관리는 민간에서는 농협이 산지에서 살충제를 중심으로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간이속성검사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림부, 보건복지부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업무를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농민들의 의식제고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상당히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국내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물에 비해 농산물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수요 창출해야

이는 인기위주의 언론 보도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먹거리 공급과 관련한 위해요소 생산자 및 사용자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 제도가 아직도 미흡한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농민과 거래 상대방이 협의하여 생산방법, 사용자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농협의 전문검사원이 현지에 파견되어 기준대로 재배, 생산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인증을 내주는 '안심시스템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생산자는 재배, 생산 이력을 기록해 두고 그 정보를 소비자측에 모두 공개



“

이제는 '신토불이'의 막연한 애국심에 호소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공산이 갈수록 크다. 생산성 향상에 못지 않게 믿고 살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에게 잘 선택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대상품목으로는 청과물을 비롯하여 쌀, 축산물, 낙농품 등 농산물 전체가 포함되고 있다. 통일된 한가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안심시스템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간에 논의하여 상대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생산자 측은 재배, 생산관리의 작업기록을 빈틈없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먼저 안전성 목표를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부합되도록 하고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일반 농산물도 HACCP와 유사한 안전관리방식을 조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금 우리의 식품시장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식품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크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팔리지 않아 적기에 출하되지 못하고 생산농가의 창고나 밭에 장기간 묵여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면 농업관련산업 또한 덩달아 폐해를 입기 마련이다. 더구나 급년부터는 쇠고기 시장

이 개방됨으로써 이제 최소시장접근으로 묶여있는 '쌀'을 제외하고는 바야흐로 전면적인 식품시장 개방화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식품시장이 완전개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은 내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나아가 공세적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여기서 우리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이 관심을 쏟고 힘을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농산물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옛 문헌에도 영토를 넓히는 것이 신의를 힘써 높여 나가는 것만 못하다(益地不如益信之務也)고 했듯이 믿음을 쌓는 일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할 때에도 식품 최종수요자에게 믿음을 줌으로써 수요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자긍심·책임감으로 소비자 신뢰 높여야

이렇게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 종사

자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포함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재배단계는 물론 수확 이후 저장, 유통 및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식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직결되므로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사람들은 보다 안전한 식품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은 식품 소비자로서 하여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뢰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쌓아올린 신뢰를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언제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내의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지식기반경쟁체제의 확립으로 항상 앞서가는 경영자가 되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며 최신 시장 및 기술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생산활동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생산 및 판매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경쟁력과 이미지가 높아져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된다.

셋째,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을 내놓고 이를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긴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이를 생산과 연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어야만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얼굴 있는 생산물을 자신 있게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접근하

기에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방시대는 국내 생산물은 물론 대체품목의 해외 수입 또한 자유로워 국내 외화 사정이 허락되는 한 식품의 공급부족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이를 잘 홍보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팔릴 수 있다.

넷째,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 경영자는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과학적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운영방법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경영성과를 올려야 지속적인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가 과학적인 사고와 운영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갈 때 소비자는 그가 시장에 내놓는 상품까지도 믿게 된다.

이제는 '신도불이'의 막연한 애국심에 호소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공산이 갈수록 크다. 생산성 향상에 못지 않게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 소비자에게 잘 선택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오로지 진실무망(眞實無妄)의 마음가짐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으로 안전한 상품을 제공해야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다. 시장에 내놓는 상품(생명의 근원인 식품)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길이 우리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 종사자가 걸어갈正道(正道)임을 깨달아 이를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체제를 정립하고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 유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약정보**